

KOCHAM

Economic Briefing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USA, Inc

2014년 3월12일(수)

□ 미국 경제 동향

- 1) BIS “글로벌 채권시장규모 100조弗 초과”
- 2) 중국 경제둔화·우크라 우려 속 뉴욕증시 지수선물 '하락세'
- 3) 미국, 가계부채 급증,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나

□ 해외 경제 동향

- 1) 파이낸셜타임스(FT), “올 강력한 엘니뇨 발생”글로벌 상품시장 가격 ‘출렁’
- 2) 우크라이나, 경제 회생 쉽지 않을 것

□ 산업·시장 동향

- 1) 애플, 삼성에 기기 1대당 40弗 로열티 요구
- 2) 스위스 스와치 시계, 美 타겟 복제시계 제조

□ 미국 경제 동향

1) BIS “글로벌 채권시장규모 100조弗 초과”

-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반기 보고서를 인용, 지난 2007년 중반 70조 달러 수준에 그쳤던 글로벌 채권시장의 규모가 지난해 100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보도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전 세계 채권시장의 규모가 40% 확대된 것
 -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미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 각국 중앙은행이 양적완화와 같은 자산매입프로그램으로 자국 경기 부양을 위해 발 벗고 나선 데다 기업들도 전 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회사채를 발행하고 나섰기 때문
- 이 기간 발행된 채권 가운데 국채가 가장 많았으며 국채들의 액면가 총합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직전인 지난 2007년 중반 보다 약 80% 확대된 것으로 조사됨
 -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는 국채와 회사채 주택저당증권(MBS) 등 모든 채권의 금리는 채권 수요 급증에 따라 지난 2007년 4.8%의 절반 수준인 평균 2%를 기록
- BIS는 최근 수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이 증가하는 등 정부가 최대의 채권 발행처라고 지적
 - 특히 미국 연준(Fed)의 역할이 가장 컸다는 지적,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 차례에 걸친 QE 시행으로 Fed의 대차대조표를 급팽창한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

2) 중국 경제둔화·우크라 우려 속 뉴욕증시 지수선물 '하락세'

-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 확대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뉴욕증시 지수선물을 끌어내리고 있음
 -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전 7시39분 현재 다우존스산업평균 지수선물은 전장대비 42포인트 하락했고, 스탠다드앤amp;P(S&P)500 지수선물은 5.5포인트 내렸으며, 나스닥100 지수선물은 13포인트 하락 중
- 이날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선 중국 경제의 상태에 대한 가늠자인 3월물 구리 가격이 2010년 7월 이래 최저가로 떨어짐
- 중국은 최근 경제지표들도 경제 성장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지난주 일어난 중국 최초의 회사채 부도(디폴트)로 인해 중국 기업들과의 금융거래 시 대량의 구리를 담보로 잡는 관행이 무너질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또한 증가

3) 美 가계부채 급증,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나

- 뉴욕연준은행은 지난해 4/4분기 미국의 가계부채는 전년동기비 2,410억 달러 증가한 11조5,2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
 - 하지만 이는 가계부채 규모가 정점에 이른 2008년 3분기(12조6,800억달러) 보다는 감소했지만, 전년동기비 2.1% 증가한 결과로 지난 2007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
- 노무라연구소는 한 나라의 경제가 악순환에 빠지면 상황이 수년 간 지속되게 마련이라고 지적, 이번 가계부채 급증세는 악순환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호재라고 분석

□ 해외 경제 동향

1) 파이낸셜타임스(FT), “올 강력한 엘니뇨 발생” 글로벌 상품시장 가격 ‘출렁’

- 올해 강력한 엘니뇨가 발생할 것이란 경고가 잇따르면서 글로벌 상품시장과 각국 농업당국이 긴장하고 있음
 - 미국의 한파 등 이미 전 세계적으로 추운 날씨가 한창인 가운데 엘니뇨까지 덮칠 경우 글로벌 상품시장이 입게 될 피해는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전망
 - 라보뱅크 상품 애널리스트인 트레이시 앨런은 “엘니뇨는 원자재 및 상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상품 애널리스트에서 농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엘니뇨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함
 - 일례로 역대 최악의 자연재해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지난 1990~1998년 당시 발생했던 엘니뇨로 인 해 미국 농가가 입은 손실만 수백억달러에 달한다고 FT는 지적
- FT는 또 엘니뇨가 발생할 경우 작황 부진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입게 될 손실은 선진국 시장보단 신흥국 시장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봄
 - 선진국들에 비해 식료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데다 최근 신흥국 통화 약세까지 겹쳐, 수입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게 이유

2) 우크라이나, 경제 회생 쉽지 않을 것

- 엉망이 된 우크라이나 경제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진단

-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로 도피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군대를 파병한 지난 한 달 사이 우크라이나 호리브냐화(貨) 가치는 20% 떨어짐
- o 우크라이나 정부는 '뱅크런'이 지속되지 않도록 자금 인출에 제한을 가한 상태
 - 자본통제에도 우크라이나의 외환보유고는 150억 달러로 감소, 은행권의 예금 수탁고는 2월 초부터 중순 사이 3% 이상 감소
 - 정부의 세수가 급감하고 연금 지출은 중단
- o IMF는 우크라이나에 에너지 보조금 삭감 등 고강도 경제개혁을 요구 중
 - 미국·EU는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IMF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
 - 한편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에 연내 30억달러의 원조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10일 밝혔음

□ 산업·시장 동향

1) 애플, 삼성에 기기 1대당 40弗 로열티 요구

- 지난 3월11일(현지시간) 독일의 특허 컨설턴트인 플로리안 뮐러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속기록을 공개
 - 속기록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31일 시작되는 특허침해 손해배상 2차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잠금 해제, 자동 완성, 전화번호 부분 화면을 두드려 전화 걸기, 통합 검색, 데이터 동기화 등 5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
- 삼성은 이번 재판에서 디지털 화상과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방법과 원격 화상 전송 시스템 등 2개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할 예정

2) 스위스 스와치 시계, 美 타켓 복제시계 제조

- 지난 3월12일(현지시간) 스위스 언론들은 스위스 최대 시계 제조사인 스와치가 미국의 대형할인매장인 타켓을 상대로 자사 시계를 모방했다며 미국 법원에 제소했다고 보도
 - 스와치사는 타켓이 자사의 '제브라 '와 '멀티 컬러' 모델을 모방한 저급 시계를 판매해 소비자들을 혼동하게 하고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며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 스와치는 소장을 통해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주장했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특허 침해를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타켓이 자사의 제브라와 멀티 컬러 모델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하며 불공정 경쟁을 했다면서 손해배상과 즉각적인 판매중단을 요구